

할렐루야!

늦었지만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소망과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 지시길 기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한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삼스레 늘 즐겨 듣고 부르는 "은혜 아니면 살아 갈 수가 없네..." 찬양이 더욱 은혜로 다가오네요.

과야킬은 4월말까지는 우기라서 무척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비가 내려서 조금 선선하네요. 5월초까지는 지금의 날씨가 유지된다고 하니 살짝 걱정도 됩니다만 세차게 내리는 비와 뜨거운 날씨만큼 세차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길 기도합니다^^

- 누에바 프로스페리나(Nueva Prosperina) 사역시작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누에바 프로스페리나" 라는 도시 외곽에 있는 빈민 지역입니다.

작년 4월부터 새로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에게 추천도 받고 직접 지역을 돌아 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사역을 하던 썸보롱동은 농촌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도 온순한 편이었고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누에바 프로스페리나는 아무래도 도시 외곽 빈민층 거주지역이라 늘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18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지 목사님과 협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차근 차근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아름답게 동행해 나가길 꿈꿔 봅니다.

- 지역리더 모임

새로운 사역을 위해 지역의 리더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비전도 나누면서 리더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저희의 생각보다 열정이 넘쳐서 꽤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도심에 위치한데다 지역이 꽤 넓어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리더인지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과 현지인들이 바라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조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뤄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 방과후 교실

지역 내에 놀이터 공간등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진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수학과 스페인어 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1회 만들기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100여명이 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4~5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수소문해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전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 고학년을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학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2월 중순부터는 4월중순까지 2개월동안 방학이라 방학중 특강 교실로 워십댄스반도 개설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네요. 열심히 연습해서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작은 공연도 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교실도 하고 여러가지 예체능 교실도 열고 싶지만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방과후 교실 활동을 통해 부모님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아이들이 교회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치는 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127:1)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늘 즐겁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물론 갈 바를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돌발 상황들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도 많습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이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콰도르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되는 것이 지진입니다. 적도라서 허리케인은 발생하지 않지만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이다 보니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번 달에도 진도 5.0을 넘는 지진이 2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법 많이 흔들렸던 지진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네요. 살다보면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익숙해지기엔 저희가 너무 연약하네요.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1.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 되도록
2. 아동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3. 2020년에 새로운 센터를 오픈 하는 과정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4. 하람이와 하빈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사역모습 *



<지역 리더 모임>



<방과후 교실 접수 / 자원봉사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 교실 수학반 스페인어반 모습>



<만들기 수업>



<워십댄스>